

순천만에서 지난달 20일 흑두루미 3마리의 월동이 포착된 이후 2주일 만에 총 1천500여마리로 급증했다. 순천만은 갯벌과 주변 농경지가 맞닿은 우수한 생태 환경으로 겨울 철새가 찾는 월동지로 꼽히는 곳이다. 사진은 순천만에서 월동 중인 흑두루미 무리 모습. 〈순천시 제공〉

"순천만에 겨울이 찾아왔다"…흑두루미 월동 시작

2주일 만에 총 1천500여마리로 급증
큰고니·기러기 등 겨울 철새도 도래
市, 서식지 보호·AI 예방 방역 강화
10일부터 '탐조여행' 프로그램 운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가 순천만에 흑두루미 월동이 관찰되면서 겨울 철새를 맞이할 본격적인 겨울 채비에 나섰다.

4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흑두루미 3마리가 포착된 이후 이달 2일 기준 약 1천500마리까지 빠르게 증가하며 월동을 시작했다.

순천만에는 흑두루미 뿐만 아니라, 검은목두루미 2마리, 큰고니 3마리를 비롯해 기러기류 등 다양한 겨울 철새들이 잇따라 찾아오면서 순천만의 겨울 풍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순천만은 갯벌과 주변 농경지가 연결된 천혜의 생태환경을 갖춘 철새 월동지다. 특히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인 8천600마리의 흑두루미가 월동하며 세계적인 흑두루미 월동지로서의 가치를 입증했다.

시는 올해도 철새들이 안정적으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흑두루미 희망농업단지의 먹이터와 쉼터를 관리하는 한편, 철새 서식지 보호와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한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흑두루미의 본격적인 월동에 맞춰 전국의 탐조객들을 맞이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오는 10일부터 운영한다.

'흑두루미 탐조여행'은 전문 해설사의 안내와 함께 흑두루미의 비행과 먹이활동 등을 가까이에서 관찰하며 순천만의 생태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시티투어 프로그램이다.

탐조여행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일 1회 운영하며, 순천역 앞 시티투어 정류장에서 버스에 탑승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성인 2만원, 청소년·경로 1만8천원, 어린이 1만5천원으로 월요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탐조 체험을 마친 방문객들은 드넓은 갈대밭을 거닐며 겨울 철새와 순천만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게 된다.

프로그램 관련 자세한 내용은 순천여행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예약은 홍보물의 QR코드 스캔을 통해 가능하다.

순천시 관계자는 "겨울철 순천만은 흑두루미를 비롯한 다양한 철새들이 머무는 특별한 공간"이라며 "흑두루미 탐조여행을 통해 아름다운 겨울 풍경을 만끽하고 자연과 교감하며 순천의 생태적 가치와 겨울의 낭만을 느끼는 특별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백상현 기자

여수 율촌·화양농공단지 '中企특별지원지역' 지정

2년간 지원사업별 정부 지원 혜택
서영학 시장 "중소기업 활력 기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는 4일 "율촌제1일반산업단지(사진)와 화양농공단지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2026년 10월29일부터 2028년 10월28일까지 2년간이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산업 집적지의 경영 여건 악화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 지정은 석유화학산업 침체와 대내외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고 산업단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입주기업은 관련 법령과 지원사업별 요건에 따라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혜택은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원사업 등 중기부 지원사업 평가 시 가점 부여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포함 및 요건 완화 ▲보증 조건 우대 ▲입주기업 직접생산 물품에 대한 제한경쟁입찰·수의계약 허용 등 공공조달 우대다. 이를 통해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율촌제1일반산업단지는 여수국가산단과 광양제철소 등 주요 산업과 연계된 기업들이 집적해 있어 관련 산업의 발주 감소와 경기 침체에 영향을 받고 있다. 화양농공단지 역시 석유화학 연료를 활용한 플라스틱 가공업체 등이 입주해 있어 원료가격 변동과 수요 위축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동안 시는 지역 산업 위기 상황과 입주기업의 경영 애로를 분석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현장 실사 대응 등 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율촌 산업단지는 여수·순천·광양 3개 시에 걸쳐 조성된 산업지역으로 여수시의 지정 신청을 통해 3개 시 관할 구역을 포함한 산업단지 전체가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관계 지자체와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입주기업이 각종 지원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안내와 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서영학 여수시장은 "특별지원지역 지정은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지역 경제를 지탱해 온 중소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실질적인 지원 혜택을 체감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구례군, 공공 전광판 계약전력 조정

전수조사 25개소 중 4개소 '적정화'
年 전기요금 18.1% 절감효과 기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은 4일 "관내 공공 전광판 25개소의 전력 사용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계약전력과 실제 사용 전력의 차이가 큰 4개소의 계약전력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구례군은 조정으로 연간 전기요금을 약 400만원(18.1%)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광판은 연중 상시 가동되는 시설로 고정 전력비 부담이 크다. 전기 기본 요금은 실제 사용량이 아닌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부과돼 계약전력이 실제 사용 전력보다 높으면 불필요한 고정비가 발생할 수 있다.

군은 관내 전광판의 계약전력과 실제 사용 전력을 비교·분석하고 조정이 필요한 시설을 선별해 계약전력을 낮추는 방식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계약전력 조정과 함께 심야 시간대 소등, 조도 센서와 연계한 밝기 자동조절 등 운영 방식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장길선 구례군수는 "공공시설 운영비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에너지 사용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구례=김세중 기자

담양군 '외식경영 아카데미' 운영

외식업 영업주 70여명 대상 역량 강화
해남군 우수 업소 현장 방문 벤치마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이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담양문화원 인문교육관과 해남군 일원에서 외식업 영업주 70여명을 대상으로 '외식경영 아카데미'를 운영했다. 〈사진〉

교육은 외식업소의 경영 역량과 위생관리 수준을 높여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음식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 담양문화원 인문교육관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보 교육을 통해 음식 소개 문구와 사진·영상 제작, 온라인 이용 후기 관리 등 영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실습했다. 또 식중독 예방과 위생·안전관리, 식품위생법 주요 개정 사항·위반 사례 등을 중심으로 위생교육을 진행했다.

이어 4일에는 해남군의 외식 우수 업소를 방문해 주방 관리와 고객 응대, 음식 개발·판매 전략 등 우수 사례를 살펴보고 담양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음식점들이 맛과 서비스, 위생을 두루 갖춰 관광객이 다시 찾는 곳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양=정승균 기자

곡성군, 블루베리 기초 영농기술 교육

10일까지 지역 신규 농업인 대상 진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은 4일 "신규 농업인을 대상으로 블루베리 기초 재배 기술과 농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블루베리 기초 영농기술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 기간은 오는 10일까지이며 총 4회 과정으로 진행된다. 초보 농업인과 재배 예정자 등 40명을 대상으로 곡성군농업기술센터와 선도 농가 포장에서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은 블루베리 재배를 처음 시작하는 농업인과 재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체계적인 기초 재배 기술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신규 농업인의 영농 초기 시행착오를 줄이고 재배 역량 향상과 안정적인 영농 정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곡성에서는 131농가, 44ha 규모로 블루베리를 재배하고 있다. 2026년 출하 규모는 307t(84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2031년까지 재배 규모 70ha, 생산액 140억원 달성을 목표로 전국 최고 장기 출하 산지 도약을 위해 품질 관리와 판로 확대에도 힘쓸 계획이다. /곡성=김영필 기자

광양 백운장학회, 대학생에 생활비 장학금

최대 175만원…지역상품권·현금 혼합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는 4일 "재단법인 백운장학회가 2026년 하반기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을 오는 16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75만원이다.

장학금은 지난달 31일까지 신청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광양시 거주 기간과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서류 검토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1·2차 지급 대상자를 구분한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와 달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학금을 광양사랑상품권과 현금으로 나눠 지급한다.

상품권은 장학금 규모에 따라 50만원권과 10만원권을 조합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1차 지급 대상은 지난달 23일까지 신청한 학생 중 서류 검토가 완료된 학생이다. 대상자에게는 오는 13일 카카오톡 안내 메시지가 발송된다.

상품권은 16일부터 12월31일까지 신청 시 선택한 읍·면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현금 잔액은 16일 일괄 지급된다.

2차 지급 대상은 1차에 포함되지 않은 신청자 중 이달 13일까지 서류 검토가 완료된 학생이다. 지급 장소는 12월1일부터 31일까지 광양시 교육청소년과 사무실(커뮤니티센터 5층)에서 받을 수 있다. 현금 잔액은 12월1일 일괄 지급된다.

상품권은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부모가 대신 받는 경우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백운장학회 관계자는 "지급 차수에 따라 상품권 수령 일정과 장소가 다른 만큼 공고문과 카카오톡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길 바란다"며 "장학금이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백상현 기자

'다 함께 걸어보성!' 건강 걷기 행사 관심

18일 녹차골보성향토시장서 집결
군민 함께하는 대면 행사로 확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이 오는 18일 오후 1시30분부터 4시까지 녹차골보성향토시장과 동윤천 생태공원 일원에서 '다 함께 걸어보성!' 건강 걷기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는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통해 개별적으로 실천하던 걷기 활동을 군민이 함께하는 대면 행사로 확대해 일상 속 걷기 실천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참여 대상은 보성군민 300명 안팎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17일까지 온라인 사전 신청 또는 행사 당일 현장 신청을 통해 참가하면 된다.

참가자들은 녹차골보성향토시장에 집결해 동윤천 생태공원 입구의 데크길과 철도건널목, 공원 둘레길을 거쳐 시장으로 돌아오는 약 3.4㎞ 구간을 걸을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올바른 걷기 자세 교육과 함께 신체활동, 비만 예방, 영양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보건사업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완주한 참가자에게는 기념품을 제공한다. /보성=임병언 기자